

“정부 공공기관 이전 시즌 2 국가균형발전에 초점 맞춰야”

전남도·민주당 전남도당 정책토론회 개최



전남도와 민주당 전남도당은 16일 국회에서 공공기관 이전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남도 제공)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시즌 1 때 기계적인 배분으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 간 격차가 있는 만큼 시즌 2는 권역별 공공기관과 행정기관 총량을 감안, 이전기관을 차등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는 16일 실질적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 2 차 이전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 시즌 2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우원식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민형배 국회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 주가 이전방안’에 대한 기조발제에 이어, ‘혁신도시 시즌 2’ 추진 방안과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의 필요성 등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발표자인 오병기 광주전남 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이전 시즌 1 때 이전기관의 기계적인 배분으로 비수도권 지역 간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시즌 2는 권역별 공공기관과 행정기관 총량을 감안해 이전기관이 차등 배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의 권역별 총량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이전기관 균

등배분은 국가 균형발전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며 “이전기관 차등 배분 시 균형위가 발표한 균형 발전 지표 등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널토론회에서는 이민원 교수(광주대)를 좌장으로, 이기원 교수(한림대), 강혜정 교수(전남대), 송미령 선임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두희 실장(산업연구원), 김정훈 원장(재정정책연구원) 등이 참여해 차등 배분 방안과 혁신도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인한 혁신도시의 인구와 세수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공기관 이전 시즌 1의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하지만 ‘지역 성장거점’으로 성장하는데 1차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기라는 대한민국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비수도권 지역 간 발전 격차 해소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 시즌 2’가 바람직하게 추진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지난 4월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응 TF팀을 구성, 23개 유치 대상 기관과 지역산업 연계성 등을 점검하고 유치전략·추진과제 수립에 나서고 있다.

김정환 기자

한국철도 전남본부, 폭우

장마 대비 안전점검 실시
소하천·횡단하수로 609개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전남본부는 예년보다 빠르게 시작되는 금년도 장마에 대비하여 최근 철도교량 소하천 및 횡단하수로 609개소 전체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금번 점검은 장마와 국지성 호우에 의해 취약해질 우려가 있는 궤도와 선로변 비탈면 및 배수로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사전 보수와 정비를 실시함으로서 열차안전 운행을 완벽히 확보하고자 시행했다.

특히, 폭우로 인한 비탈면 붕괴 및 하천 범람이 우려되는 개소에 대해서는 재해예방설비 설치와 하천 정비 및 하수로 입출구 토사제거 작업을 시행함으로서 장마에 대비한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김양숙 전남본부장은 직원들에게 “장마철 대비, 사전 점검과 시설물 보수를 통해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고객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물 정상기능 확보와 수해 예방활동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해외시장 화상수출 상담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정영준)는 17일 나주 시티호텔에서 전남지역 농수산식품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

이번 화상 수출상담회는 전남 지역 농수산식품과 화장품 등의 해외 수출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며 19개사의 전남기업이 참여해 해외바이어 12개사와 상담한다.

이 자리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바이어들과의 대면상담이 불가능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화상상담으로 진행된다.

전남혁신센터는 거리적 제약을 넘어서 화상 수출상담을 통해 전남의 우수 상품들이 세계시장에서 판매되고 알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전남혁신센터는 전라남도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전남혁신센터 1층에 전문 설비를 갖춘 전문 화상수출상담소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동구,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 동 워크숍 개최

광주 동구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해 시범 3개 동에서 관련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워크숍은 전날 오후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시범 동으로 지정된 총장·동명·지산2동의 위원 50여명이 참석했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개념설명과 타 자자체 전환사례를 통해 전반적인 이해의 시간으로 마련됐다.

주민자치회는 행정기관의 자문기관인 자치위원회에 반대 위원들이 직접 마을 사업을 결정하고 마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서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발대식 개최

광주 서구는 16일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서구 각 동 주민 30여명으로 구성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매월 둘째주 화요일 정기적인 회의를 가져오고 있다.

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필요한 주요 정책 및 도시공간에 대한 모니터링 교육, 양성평등 행사 참여 및 여성친화기업 실사 활동 등을 수행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신규 시민참여단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방향 및 금년 시민참여단 활동계획 등에 대한 안내가 진행됐다.

남구, 내년 양립동에 예술여행 지원센터 문 연다

광주 남구는 양립동 지역 주민들과 이곳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예술인 양립동을 방문한 관객 모두가 공유하는 예술여행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객을 유치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예술여행 지원센터 조성을 나선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양립동에 조성되는 펭귄마을 예술여행 지원센터는 펭귄마을 인근에 지하 1층, 지상 2층 한옥으로 신축 예정인 청년 창작소 건물 내 1층에 들어선다.

펭귄마을 예술여행 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시설 운영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6억원 가량이다.

북구,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서 우수

광주 북구는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에서 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전국 167개 평생학습도시 중 특·광역시 소속 42개 평생학습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는 평생학습도시로서 역량과 지속가능성을 검증하고자 마련됐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실적을 평가했다.

지난 2011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북구는 그동안 은퇴자들의 노하우(비결)를 젊은 세대와 공유하는 ‘인생배움터 무릎학교’와 지역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일·잇·소’ 일자리 특화사업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해 왔다.

광산구, 신비한 아프리카 대모험 참가 학생 모집

광주 광산구가 아프리카 리듬으로 예술을 배우고 감상하는, ‘출발! 신비한 아프리카 대모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2기 수강생 50명을 다음 달 15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문화예술공동체 ‘울림’(대표 오지영)이 광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 마련한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관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사업’의 하나.

이번 프로그램 수업은 아프리카 전통춤과 악기 연주 체험학습, 아프리카 문화 이해, 공연관련 예절교육 등으로 꾸며져 있고, 7/18~8/1 일 매주 토요일 오전 광산문화예술회관과 광산구청에서 3회 진행된다.

임형택 기자

광주시민의 숲 물놀이장 올해 개장 취소… “코로나 우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7~8월 개장하던 광주시

민의 숲 물놀이장 운영을 취소키로 했다.

광주 시민의 숲 물놀이장은 지난 해에만 2만5000여명의 이용객이 찾을 만큼 인기가 높은 곳이지만,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물놀이장은 어린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통제가 어려워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

김석웅 시 환경생태국장은 “많은 시민들의 피서지로 각광받던 시민의 숲 물놀이장 개장을 하지 못해 아쉽지만 내년에 보다 좋은 여건을 만들어 물놀이장을 개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바이어들과의 대면상담이 불가능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화상상담으로 진행된다.

전남혁신센터는 거리적 제약을 넘어서 화상 수출상담을 통해 전남의 우수 상품들이 세계시장에서 판매되고 알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전남혁신센터는 전라남도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전남혁신센터 1층에 전문 설비를 갖춘 전문 화상수출상담소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정의 안전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입법화 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므로,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